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6월 3일(주일) 제1199호



지난해 마리아행전.

나라와 민족 위해 무릎 꿇는 마리아들

2018 마리아행전 '사랑의 힘' 참가자 모집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
운동 마리아행전 '사랑의 힘'이 오
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2018 마리아행전 '사랑의 힘'은 오
전·오후 강의와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으로 꾸며진다. 오전·오
후 강의는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
까지,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
전은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www.onnuri.org)나 각 캠퍼스 목회

행정실에서 받고 있다. 선착순 모집
을 하기 때문에 등록을 서둘러야 한
다. 행사 당일등록은 받지 않는다. 등
록비는 마리아행전 4만원, 직장여성
들을 위한 마리아행전 2만원이다. 6
월 20일까지 등록하면 각각 2만원과

1만원을 할인해 준다.

2018 마리아행전 '사랑의 힘'에서
는 주제별 강의를 이어진다. 27일에는
'믿음의 힘'을 주제로 이재훈 담
임목사, 김영애 권사, 28일에는 '소
망의 힘'을 주제로 토레이 신부(예
수원), 김성근 목사(노원한나라온혜
교회), 29일에는 '사랑의 힘'을 주제
로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지
선 교수(한동대)가 강의한다.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에
서는 27일 유기성 목사, 28일 이지선
교수, 29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
지를 전한다.

한편 마리아행전 기간에는 대중교
통을 이용해야 하고, 집회에 참석하
는 여성들은 반드시 흰색 상의와 검
정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문의: 02-3215-3667, 02-570-7277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나의 아버지 하나님...”

러브소나타 샹포르 41명 결신, 긍정적 반응 126명

러브소나타 샹포르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41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
접하고, 126명이 교회와 기독교에 긍
정적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샹포르
와쿠와쿠힐리데이홀에서 열린 러브
소나타 샹포르에는 일본인 1,258명,
한국인 444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교
회 세미나, 가스펠나이트, 한일리더
십포럼, 러브소나타 샹포르 대회 순
으로 진행됐다. 30일 기보노오카교
회에서 진행된 교회세미나에서는 박
종길 목사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 정진호 장로 '세상을 이기는 크리

스천', 이기복 교수 '가정사역과 자
녀양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같은 날
저녁 와쿠와쿠힐리데이홀에서는 가
스펠나이트 집회가 있었다. 이 자리
에서 오시마 시게노리 목사(KGK전
국총주사)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
지 않는다”며 “가족 구원을 위해 끝
까지 노력하자”고 설교했다.

31일 샹포르프린스호텔에서 '계승'
'을 주제로 열린 한일리더십포럼에
는 한국과 일본의 정재계 리더 187
명이 모였다. 31일 저녁 와쿠와쿠힐
리데이홀에서 막 오른 러브소나타
샹포르 대회에는 테너 배재철, 소프

라노 김영미,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
무,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코가, 가야
금 연주자 이슬기, 러브소나타 샹포
로 2018 연합합창단 & 오케스트라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재훈 담
임목사는 '가족'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하며 참가자들에게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와타나베 다케루 형제는 “예수님
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고 했다.

/ 정현주, 김현준 기자

해외 아웃리치 스쿨 개강

5일 서빙고 한동홀, 12일 양재 화평홀

2000선교가 개최하는 해외 아웃
리치 스쿨이 6월 5일과 12일에 개강
한다. 더욱 안전하고 풍성한 여름
아웃리치를 위해서 성인공동체, 차
세대, 대학청년부, 예수제자학교
(JDS), 선교유관기관 담당자, 국제부

등 각 부서 해외 아웃리치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해외 아웃리
치 스쿨은 6월 5일(화) 오후 7시 30
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 6월
12일(화)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
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6월 비전헌금, 대형 아웃리치 후원

다음 주일(10일) 봉헌하는 6월
비전헌금은 대학청년부 여름 아
웃리치를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올 여름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아웃리치에는 국내

62개 지역 84개 팀 2,133명, 해외
27개국 52개 팀 782명, 총 2,915
명이 참가한다. 주요사역은 예배
섬김, 다문화가정 섬김, 지역전도,
노숙인 섬김 등이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춤꾼이 있다. 최종천 형제(53세, 서빙고 누리사랑부)다. 그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말하는 것까지 불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계단을 오를 때 벽을 짚어도 다리를 절뚝거리고, 말도 자주 더듬는다. 그런 그가 춤을 춘다. 춤출 때만큼은 장애가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춤 실력도 빼어나다. 2003년 무용단 ‘트러스트’에 입단해 ‘데칼로그’, ‘시선 1+1’ 등의 작품에서 출연했다. 지난 3월에는 평창 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두리 새로 서로 하나’ 공연에 출연했다.

“춤은 나의 신앙고백이자 삶입니다”

춤추는 예배자 ‘최종천 형제’

참 보기 드문 사람이다. 신앙도 깊은데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도 깊다. 거기다 마음씨까지 굽다. 춤추는 예배자 최종천 형제 말이다. 그는 3남1녀 중 첫째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 김상에 권사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종천이를 가진지 석 달 되었을 무렵 정말 큰 뱀이 제 발 위로 지나갔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일이 뱃속에 있는 종천이에게 영향을 준 거 같아서 늘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 속도가 눈의 띄게 느렸다. 일곱 살이 되어서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었다. 9살 때는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홀로 대전으로 갔다. 대전에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가족이 있는 서울로 다시 왔다. 서울에서 일반중학교를 졸업했지만 집안형편이 좋지 않아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1년 동안 국립재활원에서 사진·식자(문자를 촬영해 판본 원고)를 작성하는 것을 배우기도 했다. 그러다 1997년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2년 뒤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때가 그의 나이 서른다섯 살이었다. 힘든 시절을 보낼 때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준 곳은 교회였다.

“교회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교회에 만 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신앙 그리고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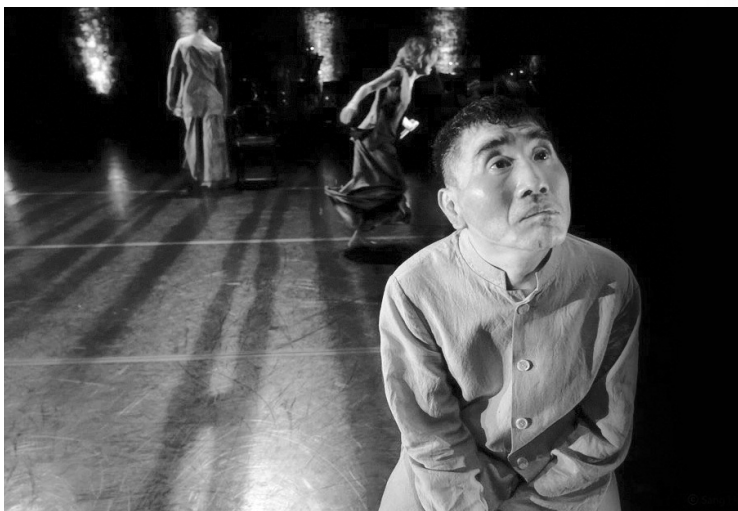
최종천 형제에게 하나님과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지금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일주일에 성경 300장을 읽었어요. 읽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많게는 일주일에 900장을 읽은 적도 있어요.”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진 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 팔다리가 쭈시고 심장이 답답했다. 고약한 악취까지 났다. 그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쭈시고 아팠던 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지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악취가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향기로 바뀌더라고요.”

최종천 형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종천 형제.

날 이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커져만 갔다. 지금도 매주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고, 즐거운지 모른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의 주일 일과를 보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의 주일은 이른 시간부터 시작된다. 오전 6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교회에 오는데 단 한 번도 이 시간을 어긴 적이 없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도착하면 본관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봉사자가 없으면 안내를 자청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 노약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도록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뇌성마비 장애인이 노약자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다. 그는 2부 예배를 드린다. 항상 분당 가운데 맨 앞줄에 앉아 있다. 2부 예배가 끝나면 곧장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 ‘누리사랑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콘서트홀로 이동한다. 누리사랑부에서 최종천 형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청천일색이다. 그는 누리사랑부에서 자막 섭검과 점심식사 전반찬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다. 누리사랑부 소속 지체가 아프기라도 하면 심방도 간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좋아서 한다.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결코 가로막지 못한다.

최종천 형제는 효심도 깊다. 누리사랑부에서 간식을 나눠주면 먹지 않고 꼭 가방에 챙긴다.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먹기 위해서다. 절대 간식을 혼자 먹는 법이 없다.

“선물을 받으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평생 효도하며 살아야죠. 그게 도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른다. 왜 장애인으로 낳았냐고 원망할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한 자신을 먼저 돌봐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요즘 세상에 이런 효자 보기가 쉽지 않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종천 형제에게 온누리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다. 제2의 인생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그는 2002년 온누리교회에 왔다. 그리고 2003년 당시 누리사랑부 담당목사의 추천으로 무용단 트러스트에 입단했다. 그의 제2의 인생이 그렇게 막 올랐다.

“장애인 역할을 맡아줄 배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음가는대로 춤을 췄는데 그 자리에서 발탁이 됐어요. 춤을 추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들이 무용하는 것을 만류했다. 불편한 몸으로 춤을 춘다기에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아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최종천 형제는 38세에 춤꾼이 되었다.

무용은 그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였

다. 무용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수많은 연습이 필요했다.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무용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체중이 5kg나 빠질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다. 그가 처음으로 출연한 작품은 ‘데칼로그(십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몸으로 표현한 공연)’인데 그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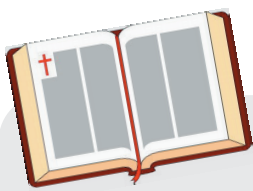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혼신을 다했어요. 공연 마치고 느낀 뿌듯함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춤추는 예배자로 제2의 인생을 만끽하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또 찾아왔다. 2005년 목욕하고 나오다 넘어져서 허리뼈가 골절됐다. 그 사고로 독일과 멕시코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모든 공연을 취소해야 했다. 실의에 빠져 있는 그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 2012년 무용단 트러스트 김형희 단장이 최종천 형제를 다시 불렀다. 그리고 접었던 꿈의 날개를 펴고 또 다시 비상하도록 도왔다. 장애인 단체 7곳을 돌아다니면서 단막극 공연을 했다. 2018년 평창 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공연 ‘두리 새로 서로 하나’에도 출연했다. 그에게 춤은 신앙고백이자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춤을 통해 저와 같은 장애인들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 건강이 허락한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 중에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에 일을 하러 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일과 예배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창 2:15).

동산을 ‘일꾼다’ 혹은 ‘경작한다’의 어원인 ‘아보다’라는 말에서 히브리어로 ‘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보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일, 섬김,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일과 예배를 한 단어로 사용한 것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낙원의 일부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일을 통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인간은 일과 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일, 그 자체가 예배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무위도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을 무위도식하는 세상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 시대의 세계관이 등장합니다. 어느 시대 천사들을 그린 그림을 보면 한결같이 하얀 피부에 포동포동 살이 찼습니다. 천국에는 일이 없고 놀기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잠언을 보면 지옥에는 일과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지옥에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은 일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은 일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세상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일을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월요일부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점입니다.

세 명의 석공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문객이 첫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석공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보면 모릅니까? 나는 지금 돌을 깎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당을 짓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와 동시대를 살면서 기독교적 지성을 일깨운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Sayers)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일하는가?’라는 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회는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일꾼은 그의 직업 밖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적인 일은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회는 목수에게 도덕적 교훈과 교회 출석을 언급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의 신앙이 그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은 좋은 식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천 목수가 부실한 식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시간 맞추느라 일을 대충 마무리 하고 떠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성도는 법에 따라 올바르게 경영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참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이 타락의 결과는 아니지만 일 자체가 타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일이 힘들고, 어렵고, 축복의 일부가 아니라 저주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은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이 짐과 멍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고통스러운 만큼 죄의 영향력이 가득합니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타전입니다. 끊임없는 중상모략이 난무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하는 세상입니다. 구조조정의 위협 속에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필요한 소득을 얻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 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 주게 됨이라”(전 2:17~18).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전 2:22~23).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고백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말씀에서 위로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위로와 공감을 얻고 거기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왜 인간이 더욱 허무해지는지 그 원인을 찾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이 괴로움이 되고, 일을 하면 할수록 허무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통한 성취와 성공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2장에서 허무의 고백을 하기 전에 많은 일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 재물,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일을 통해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고, 그 성취감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일 자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일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일을 추구하게 될 뿐입니다. 일이 끔찍한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더 큰 갈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쉼, 적절한 멈춤,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일을 통해 예배드리는 것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없으면 일의 목적, 방향, 의미를 잃어버리고 일의 우상이 됩니다.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다

둘째,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 자체를 거부하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일이 우상이 아니라 노는 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일을 과소평가하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잘못된 특권 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살전 4:11).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반드시 찾지 않으면 잘못된 일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은 일에만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려는 목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구원 받고, 믿음으로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반드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우상이 되지 않고, 여가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구속 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일의 노예가 되지, 여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일본 삿포르의 기독교 역사

142년 동안 이어진 ‘삿포르 선교행진’

클라크 박사부터 우치무라 간조, 러브소나타까지

142년 전이었다. 미국인 클라크 박사가 삿포르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 씨앗이 자라서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이 우치무라 간조를 탄생시켰다. 그 복음의 씨앗은 삿포르에서 두 차례나 하나님의 사랑노래 러브소나타가 울려 퍼지는 열매도 맺게 했다. 한 사람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142년 동안 뿌리내리고, 싹을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삿포르를 뛰어 넘어 일본 전역이 복음화 되는 그 날까지.

삿포르 지역의 기독교 역사는 142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 긴 시간 동안 삿포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1세대, 일본 기독교 사상의 뿌리 2세대, 교단과 교파를 뛰어 넘어 ‘초교파’라는 새 역사를 쓰고 있는 3세대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삿포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1세대는 1876년 개교한 삿포르농학교(현재 홋카이도대학)에서 탄생했다. 당시 일본 메이지정부는 인구 약 3천명이던 삿포르에 교육기관을 설립했는데 바로 그 학교가 삿포르농학교(1기 24명)다. 미국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가 이 학교 교장으로 초청됐다.

복음의 씨앗 뿌린 1세대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으로, 매사추세츠 농과대학 3대 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메이지정부는 클라크 박사를 초빙하면서 “농업기술만 교육하라”고 신신당부 했지만 크리스천이었던 그는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이다. 클라크 박사는 일본인 학생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어 추방당했다. 클라크 박사의 추방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노력이 헛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가 일본에 머문 시간에 8개월 밖에 안됐지만 열매 맺기에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다. 클라크 박사는 ‘예수 믿는 자의 서약’을 만들어 삿포르농학교 1기생 15명, 2기생 18명이 자발적으로 서명하도록 독려했다. 그때 서약한 이들이 후에 ‘삿포르 밴드’로 불리며 삿포르 지역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1877년 4월 16일, 미국으로 떠나는 클라크 박사가 학생들과 작별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말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격언이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클라크 박사가 학생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다. 전문을 보면 클라크 박사는 삿포르농학교 학생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알려줬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클라크 박사가 삿포르농학교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다. 그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일본 사회를 선도한 인물들이 대거 배출되었다. 사토 쇼스케(홋카이도제국대학 초대총장), 오시마 마사타케(언어학자, 종교가), 와타세 토라지로(교육자) 등이 그의 제자들이다. 클라크 박사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삿포르농학교 2기에서는 니토베 이나조(교육자, 국제연맹 사무국장 역임), 우치무라 간조(종교가, 사상가), 히로이 이사미(토목공학), 미야베 긴고(식물학자) 등을 배출했다.

일본 기독교 사상의 뿌리 2세대

삿포르 지역 복음의 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우치무라 간조(1861~1930)라고 할 수 있다. 우치무라 간조는 일본 기독교 사상가다. 서구적인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본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을 찾고자 했던 인물이다. 우치무라 간조는 삿포르농학교 재학시절 동기의 전도로 신앙을 접했다. 그가 소속되었던 삿포르 밴드는 요코하마 밴드, 구마모토 밴드와 함께 일본 기독교 발상을 이끈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삿포르 밴드는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이 없는 민주적인 공동체였다. 삿포르 밴드에서의 경험이 우치무라 간조의 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치무라 간조는 대학을 졸업한 1882년 친구들과 함께 삿포르 독립교회를 세웠는데 5명의 위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했다. 중요한 결정은 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택했다. 그는 1884년 앰허스트대학교에서 유학했고, 하드포드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888년 귀국해 도쿄에 있는 제일고등중학교 교직원이 되었다. 우치무라 간조는 1891년 일본 천황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교육에 관한 칙어(일본 제국 신민들의 수신과 도덕 교육의 기본 규범)’를 봉독할 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일본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 그 일로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병사하는 힘든 시간을 보낸다.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치무라 간조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구약〉, 〈전도의 정신〉 등을 저술하며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1921년부터는 도쿄 시내에서 매주 주일 로마서를 강의하며 복음을 선포했다.

우치무라 간조는 한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한국인이 개신교 운동가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최태용 선생 등이다. 특히 김교신은 우치무라 간조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김교신은 우치무라 간조가 주관하는 성서연구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을 전수받았다. 그렇다고 김교신이 친일파는 절대 아니다. 그는 3.1운동에도 참여해 조선의 독립을 꿈꾼 애국자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며 “불공대전(不共戴天)의 철심(鐵心)을 품고 동해를 건넌노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나라 사랑이 뜨거웠다. 김교신과 우치무라 간조를 이어준 끈은 ‘애국’이었는지도 모른다. 우치무라 간조는 교육에 관한 칙어 사건으로 모든 일본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수모를 당했지만 여전히 고국을 사랑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다. 바로 이것이 김교신과 우치무라 간조의 공통점이다.

김교신은 1921년부터 우치무라 간조의 문하에서 신앙을 키웠다. 1927년 귀국한 김교신은 일본의 억압에 절대 굴하지 않았다. 신사참배 거부는 물론이고, 창씨개명도 하지 않았다. 월간지 〈성서조선〉의 주필을 맡아 15년 동안 활동하면서 애국과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김교신이 일본인 우치무라 간조로부터 신앙을 전수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비난했다. 김교신과 우치무라 간조는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았다. 김교신은 우치무라 간조가 보여준 애국과 신앙의 태도를 존경했다. 우치무라 간조는 그의 일기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는 김교신 등의 한국 학생들”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의 독립과 자유가 귀한 만큼 한국의 독립과 자유도 귀하다”고 말할 정도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초교파’라는 새 역사 쓴 3세대

어쩌면 우치무라 간조와 김교신을 비롯한 한국인들과의 귀한 만남이 지금의 삿포르 복음 3세대로 이어졌는지 모른다. 삿포르 지역 기독교 3세대를 탄생시킨 촉매제는 ‘러브소나타’다. 2007년 11월 러브소나타 삿포르 집회가 막 올랐다. 당시 삿포르 지역에 있는 170개 교회 중에서 71개 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연합했다.

당시 실행위원장이었던 시타미치 사다미 목사는 “일본 교회가 초교파적 연합을 한 것은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며 감탄했다. 2007 러브소나타 삿포르가 열린 후생연금회관은 2천 3백 명을 수용하는 규모였는데 3,102명(일본인 2,580명, 한국인 522명)이 운집했다. 삿포르 지역에서 열린 기독교 집회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인 것은 전례가 없어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11년 만에 두 번째 러브소나타 삿포르



러브소나타 삿포르의 출연자들이 러브소나타 참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훈 목사와 오카다 준이치 목사가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에 열린 가스펠나이트.



러브소나타 샷포로 출연자와 참가자들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로가 열렸다. 70개 교회가 연합하고, 일본인 1,258명, 한국인 봉사자 444명이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이 또한 기적이다.

샷포로 지역 기독교 역사는 미국인 클라크 박사로부터 시작해서 우치무라 간조로, 우치무라 간조에서 러브소나타 샷포로로 이어지면

서 142년 동안 선교행전을 써내려 왔다. 샷포로 선교행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샷포로를 넘어 일본 전역이 복음화 될 때까지 하나님의 완

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새 역사를 써 내려 갈 것이다.

/ 정현주 기자, 김현준 기자

샷포로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사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사실에...”



기무라 케이이치 목사
(기타히로시마채플그리스도교회)

러브소나타 샷포로가 더욱 특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 더 특별하다.

기무라 케이이치 목사(기타히로시마채플그리스도교회)는 어두운 과거가 있다. 도박과 폭력, 유흥에 젖어 살았다. 기독교 혐오자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누나가 건네준 성경책을 받아들이고 인생이 바뀌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또 한 명의 산증인이다. 지금 그는 어

두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목사가 되었다. 유흥을 즐기고 도박과 싸움을 일삼던 밤거리를 다니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다.

기무라 목사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다. 90년대 일본 학원 폭력물에 나오는 불량학생과 닮았다. 기무라 목사는 검은 양복에 양키 머리(앞 머리카락을 위로 빗어 넘기고, 옆 머리카락을 뒤로 빗어 붙인 스타일)를 하고 있는데 그 외모 때문에 어릴 가나 시선을 끈다. 10대 시절부터 이 머리스타일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꺼릴만한 또 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일본신도(日本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골수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국수주의자였거든요. 외국 종교, 특히 기독교를 싫어하다 못해 혐오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까지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젊은 시절부터 도박과 싸움, 유흥에 빠져 살았다. 합법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불법도박으로 제법 큰돈도 만져봤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다. 또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나약하다고 생각했고 혐오할 정도로 미워했다.

“야쿠자 세계에서는 맞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대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사상은 약해빠졌다고 생각했어요. 약한 가치관을 강한 일본 민족이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도 그가 기독교를 혐오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우익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도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미화된 특공대 이야기나 나라를 위해 활복하는 영상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나도 특공대처럼 멋있게 살다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6살 되던 해였다.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누나가 성경책을 건넸다. 마지못해 펼친 성경책에서 말씀한 구절이 그를 사로잡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눈을 땀 수가 없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깨달았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나라를 위해 내가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 예수

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내 생명을 걸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가치관이 달라졌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했다. 생각을 바꿨더니 행동이 달라졌다. 흥청망청 즐기던 유흥을 청산하게 됐고, 불법적인 일에서도 완전히 손을 뗐다. 그리고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받았다.

기무라 목사는 매주 월요일 밤마다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샷포로 변화가에 간다. 밤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다.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진 그가 러브소나타 샷포로에 참석했다. 큰 감동과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만끽하고 돌아가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온누리교회처럼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인천 온누리교회 새로 건축한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 내년 말 완공 목표

인천 온누리교회를 새로 건축한다. 지난달 25일 인천 온누리교회 착공감사 예배 및 착공식이 거행됐다. 내년 말 완공이 목표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2016년 2월 구월동에서 송도로 예배처소를 옮긴 이후 정해진 예배처소가 없었다. 송도 컨벤시아, 인천대 강당, 연세대 강당, 국제 캠퍼스 등을 전전하며 예배드리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 온누리교회를 건축하게 됐다.

새로 건축하는 인천 온누리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반 194-4번지에 위치해 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14,159.37㎡ (4,283.21평)이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과 차세대 예배실, 2층에는 대예배실, 차세대 예배실, 교회 사무실, 3층에는 대예배실 2층, 중예배실, 차세대 예배실, 4층은 식당 및 주방, 야외 쉼터, 소모임실로 구성될 예정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인천 온누리교회 조감도.

드리고 있다. 송도 컨벤시아, 인천대 강당, 연세대 강당, 국제 캠퍼스 등을 전전하고 있다. 예배 장소가 언제 어디로 바뀔지 알 수 없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새로운 예배처소 찾기를 반복했다. 매주 예배장소를 섭외하고, 예배준비를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성도 20~30명이 이른 시간부터 2~3시간 동안 준비해야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환경은 불안하고, 예배 준비하는 일이 몹시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깊어졌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배를 향한 갈망 때문인지 인천 온누리교회 예배는 달라도 확실하다.

지금 인천은 '전도의 황금어장'

인천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다. 이 두 가지가 인천 온누리교회의 비전이자 꿈이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인천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지 4개월 만에 몽골 아웃리치를 갔을 정도다. 교회 창립 3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선교사 11명을 섬기고 있었다. 2009년에는 몽골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헌금을 봉헌하기도 했다. 이주민지역에도 집중했다. 2010년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몽골인들을 위한 예배공동체 '몽골어예배'를 시작했다. 그런데 꾸준히 예배드리는 몽골인 성도는 한두 명 뿐이었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송도로 예배처소를 옮기면서 몽골어예배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자진해서 몽골어예배를 섬기겠다는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캠퍼스 모임도 생겼다. 인하대학교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찾아가 교제하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있다. 지금 인천 온누리교회에서는 영어예배도 드리고 있고, 중국어예배를 시작하기 위하여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 '제네섬 믿음홀'에서 기도하고 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미래의 크리스천을 길러내는 사역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인천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500명이다. 2009년 인천 온누리교회 차세대 예배출석 인원이 280명이었는데 10년 만에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늘어난 차세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예배당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 건축하는 인천 온누리교회는 차세대 예배 공간을 충

분히 확보하고,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청년들도 새로운 예배처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신주용 형제(대학부 대표MC)는 "우리에게 인천 온누리교회는 군함과 같다"면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더 많은 대학청년들이 믿음의 군사로 양성되어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인천은 선교적 의미가 깊은 땅이다. 1883년 제물포가 개항하면서 19세기 선교사들이 인천을 통해 조선 땅을 밟았기 때문이다. 배재학당(현 배재중·고등학교, 배재대학교)을 설립한 미국 북감리회 아펜젤러 부부와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를 창립한 북장로회 언더우드 선교사도 인천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왔다. 바로 그 인천이 송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또 한 번 선교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송도에 있는 국내 대학 3곳(인천대, 연세대, 인천가톨릭대)과 글로벌 대학 4곳(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에 1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GCF(녹색기후기금), WB(세계은행) 등 글로벌 기구도 자리를 잡았다. 지금 인천은 그야말로 전도의 황금어장이다. 바로 그곳에 인천 온누리교회가 세워진다.

인천 온누리교회 서경남 목사와 함께



서경남 목사

새 예배처소를 건축합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새로 지어지는 이 자리에 원래 이슬람 학교가 생길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인천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온누리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인천 온누리교회의 비전은 선교와 차세대입니다. 인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만큼 우리도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과 이주민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더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 사임들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예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입니다.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 양

성이 인천 온누리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제목을 나눠주시지요

"인천이 더욱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해주십시오. 인천 온누리교회 건축과 차세대,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인천 온누리교회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얀마 민아웅 목사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

미얀마는 대표적인 불교국가다. 불교국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NGO 더멋진세상 미얀마 사역자 민아웅 목사 가족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지 주민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고 있다. 민목사는 현재 마을에서 쫓겨나 외진 곳에 손수 지은 판자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주민들의 핍박은 민목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졌다. 큰딸 사라(14세)와 막내 요한(9세)이 겪은 고초를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라와 요한이는 그 학교에서 유일한 크리스천이다. 그 이유만으로 함께 어울리고 놀아야 할 친구들이 사라와 요한이를 몹시 괴롭힌다. 친구끼리 사이 좋게 지내라고 타일러야 할 교사들도 사라와 요한이를 괴롭히거나 방치한다. 미얀마에서 예수 믿는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딸 사라는 ‘자가면역성탈모’라는 병을 앓게 되었다. 군데군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이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버티기가 힘든데

친구들의 놀림이 더해져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사라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지가 약 1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내내 친구들로부터 “예수 믿어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놀림을 받아야 했다. 사라의 엄마는 그 일을 생각만 해도 눈물을 쏟는다.

“온 가족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첫째를 낳았을 때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적도 있고요.”

미얀마는 인구 85%가 불교신자다. 미얀마 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권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는 NGO 더멋진세상이 운영하고 있는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숙사 관리를 돕고 있다. 서른 살에 예수를 만나고 20년 넘게 핍박을 받고 있는 민아웅 목사는 가족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크리스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 고백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산M센터에 방문한 민아웅 목사 가족.

를 비난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난 5월 9일 민아웅 목사와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들이 모진 핍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 안산M센터 미얀마어예배에도 참석하고, 고향 떠난 동포들을 위로하고, 사라의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사라는 지금 신학철 장로(CMN의료팀)가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 장로는 사라의 심신이 많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사라는 건디기 힘든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정 반대의 상황을 보

냈기 때문입니다. 몸도 연약해져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멀미를 할 정도입니다.”

민아웅 목사 가족은 오는 8월까지 한국에 머문다. 평일에는 신학철 장로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주일에는 안산M센터에서 예배를 드린다.

민아웅 목사 가족들이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줬으면 좋겠다. 함께 드라이브도 가고, 근사한 저녁식사를 대접해 줘도 좋다. 문화생활을 함께하는 것도 좋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문의: 02-2271-2246



포항 지진 그 후

“빛진 자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포항 흥안교회 6개월 만에 다시 예배드린 날

6개월 만이었다. 포항 흥안교회에서 다시 주일예배를 드리는 김두천 목사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성도들의 표정에 천국이 임해해 있었다. 이날이 더욱 뜻 깊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흥안교회 재건축을 축하하러 왔기 때문이다.

포항 흥안교회는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당시 큰 피해를 입었다. 예배당 벽이 갈라지고, 교회 입구 옆 가건물이 무너져 내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추가적인 피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더 큰 문제는 복구였다. 흥안교회 성도는 30명 정도인데 대부분 80세가 넘어 건축할 인력과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당시 포항에서만 피해를 입은 교회가 140곳이 넘어서 교단이나 노회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적절한 지원을 받거나 도와달라고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 온누리교회를

만났다. 대학청년부 요셉공동체는 크리스마스에 찾아와 마을잔치를 열어줬고, 온누리교회는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교회 재건축 비용을 후원했다. 약 4개월 가량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주일(5월 27일) 재건축 감사예배를 드렸다.

흥안교회 재건축 감사예배에는 NGO 더멋진세상 관계자,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몰라보게 달라진 흥안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다. 누가 봐도 한 눈에 반할만큼 근사하게 변신했다. 저 멀리서부터 흥안교회 십자가가 반짝였고, 큼직한 창문으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세련된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어르신 성도들을 위하여 수세식 화장실도 새로 만들었다.

흥안교회 김민숙 성도는 “작년에 지진 났을 때 왜 하필 교회만 피해를 입었냐고 수군거리는 소리에 얼굴이 화끈 거렸는데 새로 지어진 교회를 보니까 꿈만 같다”고 고백했



흥안교회 재건축 감사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동역자들.

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흥안교회 재건축은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했다. 다행히 골조에는 이상이 없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됐다.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금간 벽을 허물었다. 그 자리에는 튼튼한 벽이 새로 세워졌다. 재건축 공사를 담당한 황영택 장로(영광종합주택)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공사현장에 나올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 성도가 제공한 카페에서 흥안교회 주일예배를 드렸다. 초대교회처럼 뜨거운 예배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김두천 목사는 포항 지진 이후를 이렇게 회상했다.

“처음에는 크게 낙심하고, 재건축은 엄두도 못 났습니다. 잔해를 치울 힘마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됐다. 약속이라도 한 듯 도움의 손길들이 모아졌다.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교회에서 찾아와 도움을 주고 위로해줬다.

“괜찮다며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려준 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생각해 봤는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빛진 자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퀴어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VI)



2017년 10월 한국 장신대에 와서 강연한 미국 드류대 여성신학자 캐서린 켈러(Catherine E. Keller)는 ‘트랜스 페미니즘(transfeminism)’이라는 신학적 구상 속에서 성(sex)이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교차적이고 상호적으로 엮여 있다고 다음같이 주장했다.

“트랜스 페미니즘은 필연적으로 교차성의 작업이다. 이 교차성 속에서 모든 것이 상호적으로 엮여져 있다(intervoven). 그 엮임이 선 하든 악하든 간에 말이다. 억압은 우리 영혼 깊이에 파고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 상으로서 백인 이성애자 남성의 규범적 이미 지들이나 식민주의 우월성 혹은 신식민지적 우월성의 규범들을 내면화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이 거짓된 규범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켈러가 과정철학의 과정(process) 개념을 성(sex)에 적용시켜 성이란 교차적이며 상호 엮여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창조 질서인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짝으로서 상호보완적인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은 여성이 아니고, 여성은 남성이 아니다. 해부학적으로 남성이 여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창조주에 의하여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교류는 서로 생물학적, 해부학적 다름 속에서 교류할 수 있으며, 양성이 서로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지킬 때 비로소 교차성이 가능한 것이다. 창조 질서는 남성과 여성의 다름 속에서의 교류이지,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교차성과 엮임이 아니다. 이는 창조 질서

의 혼동이요, 젠더의 혼란이다.

켈러의 트랜스 페미니즘은 인간의 성을 ‘그/그녀/그것(he/she/it)’으로 규정한다. ‘그것’이란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가리킨다. 성경적 질서로서의 성(sex)이란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남성이 여성이 되거나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이 혼합(混合)성(性)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격(character)적으로는 남성 안에 여성의 모습이 있고, 여성 안에 남성의 모습이 있으나 생물학적 본성으로는 인간은 창조의 질서대로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지고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 생물학적 본성에서 남성과 여성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교차적으로 있도록 하신 것은 서로의 생물학적 다름 속에서 서로의 상호적 보완성을 허용하신 것이다.

켈러는 남성의 지배적 자아로 파악되지 않는 현 상태를 돌파하는 의미에서 ‘신적 트랜스 페미니즘(divine transfeminism)’을 다음같이 주장한다.

“신(神)은 고정적인 견해처럼 이 세계와 분리된 초월적인 위에 계신 주님이 아니다. 이 신(神)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선다는 역동적인 의미에서 초월적이다. 신적 트랜스 페미니즘(divine transfeminism)이다. 그러나 신(神)의 초월하는 신비 속에서 우리 역시 초월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 즉 현 상태(status quo)를 돌파하여 넘어서도록 부름 받은 존재이다. 이것은 내재하는 초월(ascending within)이다. 초월하는 만큼 내재한다. 따라서 신(神)은 서구의 남성적 자아(ego)의 이미지, 즉 분리되고 멀리 동떨어져 있고, 위에 있고, 지배적인 어떤 존재로 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켈러의 트랜스 페미니즘은 과정철학의 사상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과정 자체를 신적 과정으로 파악하여 ‘범재신론적’ 개념에 얽매어 있다. 이는 성경과 정통적 역사적 기독교가 신앙하는 만물의 과정 안에 계시나 과정을 초월하여 이 만물의 과정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인격적 초월적 하나님(personal transcendent God)과는 다르다. 이러한 켈러의 신(神)은 남성과 여성을 초월하여 신적인 인격 존재로서 우리에게 부정적, 모성적으로 구속자로 다가오시는 인격적 초월적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증여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지 남성적인 지배자인 가부장적 신(神)이나 남성 지배자를 대적하는 모성적인 신(神)도 결코 아니다.

켈러의 범재신론은 “모든 것은 신(神) 안에 있다”고 다음같이 말한다.

“우리는 신(神) 안에서 서로를 발견한다. 이

것은 과정신학이 말하는 범재신론(pan-en-theism)의 의미다. 이것은 모든 것이 신(神)이라는 뜻의 범신론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신(神) 안에 있다.”

이 명제에서 켈러가 언급하는 범재신론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만물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켈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신(神) 안에 있음”은 하나님과 만물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적이고 정통적 유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주권자로 초월적으로 계시고 동시에 모든 것 안에 내재적으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그의 주권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사랑 안에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소멸이 아닌 그의 치유의 행위다. 만물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면서 거룩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과정 속에 계시나 과정과 동일시되지 않고 과정 위에서 과정을 그의 목적과 뜻을 향하여 이끌고 가신다.

젠더의 부정성은 생물학적 정체성 부정이다

캐서린 켈러는 ‘젠더의 부정성(aphoraphis)’을 다음같이 제안한다.

“신비주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부정함으로써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타자성에 대해 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성은 새로운 긍정을 가능하게 한다.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남겨놓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더 배우게 한다. 이러한 계속되는 과정은 다양성(multiplicity)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운용될 수 있다. 어떤 이름에도 안착할 수 없는 것을 많은 이름으로 계속해서 부르는 것이 사실은 계속되는 부정(aphoraphis)인 것이다.”

젠더의 부정성이란 우리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의 정체하지 아니함으로서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다양성으로 자기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트랜스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운동의 진정한 아름다움, 즉 상호의존성과 얽힘의 급진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트랜스 페미니즘의 이러한 언어는 근사하게 들리나 그 내용은 인간 존재와 성(sex)의 혼돈 속에 갇혀있는 부동(浮動)적 사고의 표현으로 들린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것이 퀴어신학이 말하는 젠더의 부정성(aphoraphis)이라면 이는 자신의 생물학적 존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요, 자신이 지닌 젠더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젠더의 부정성 주장은 젠데이데올로기적 자기 폐쇄를 말하는 것이지 진정한 존재의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트랜스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적 수탈과 억압 속에서의 진정한 해방이란 “다수의 형상으로서의 얽힘(entanglement)”을 근거로 소탕하고 연대하고 각자의 정체에서 진정성(authenticity) 혹은 성스러움(divinity)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만 진정한 해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트랜스 페미니즘의 해방이란 성소수자들 무리의 연대와 해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데올로기적 집단의 독단적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소통, 연대와 해방에는 혐오의 연대가 지배하며 옹서, 사랑과 화해가 없다. 성소수자들의 연대와 해방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연민과 해방을 위하여 종사하는 자들은 ‘동성애 혐오자(homophobic)’로 낙인찍고, 이들을 법적으로 제약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젠데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이성애자들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랑에 입각한 비정성 지적을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정상인인 이성애자들의 동성애 연금에 동성애나 혼혈성이란 정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성애자들로서 자연스럽게 비정성으로 느끼는 존재 질서의 반응이지 단지 감정적 혐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만일 혐오(phobia)라고 느껴진다면 행위자의 반응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자연스런 불변함의 표현인 것이다. 퀴어 신학은 ‘트랜스 페미니즘’을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이고 경쟁을 위주로 권력을 쥔 일자의 쉼터가 체제 속에서 쉼터가 되지 않는 다수들(multiplicities)을 종단하는(trans) 다양한 해방의 연대를 실현하려는 운동이며, 여성은 그 쉼터가 되지 않는 다수의 대표적인 이름임을 인식하는 운동이라고 특정 지운다. 트랜스 페미니즘은 쉼터가 되지 않는 다수들이 여성을 위계적이고 경쟁적이며 권력 쥔 일자를 지향하는 일자의 남성애에 대항하여 세우고 있다. 여기서 트랜스 페미니즘은 남성적 가부장적 제도에 대한 다양한 해방 연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방에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가부장 제도를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페미니즘 독재 정치가 있지 아니한가?

트랜스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페미니즘의 적(敵)인 경쟁과 위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 하려고 한다. 그 근거에는 공정한 경쟁과 성공한 여성 CEO의 자기실현까지 부정하는 마르크스적 사회인식이 깔려 있다.

제3의 성 역시 젠더 이데올로기의 창안물

퀴어 신학자들은 있지도 않은 사회적 성이라는 ‘제2의 성(the second sex)’을 창안해 내어 젠더 이데올로기의 성과 속으로 생물학적 성(sex)인 제1의 성을 유폐시킨다. 이들에 의

하면 제1의 성(생물학적 성)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로부터 억압과 차별당하는 제2의 성(사회적 성)은 소통과 연대 속에서 해방을 쟁취해야 한다.

“제2의 성이 철저히 억압당하고 배제당하는 구조 속에서 제1의 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생물학적) 남성은 이 억압과 차별의 구조 속에서 이미 거세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구조로부터의 해방은 단순한 남/녀의 이분법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억압받고 차별받는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각자의 정체에서 진정성(authenticity) 혹은 성스러움(divinity)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만 진정한 해방이 가능할 것이다.”

트랜스 페미니스트들은 ‘제3의 성’을 창안한다. 제3의 성이란 ‘포스트휴먼 시대에 근대의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를 포스트휴먼주의, 즉 탈인간주의로 극복하고, 미래 시대 사이보그적 인간의 출현을 예상하면서, ‘제2의 성’으로 일어났던 페미니즘에 대한 내부적 비판으로서 우마니즘(womanism)과 억압받는 모든 이들을 품는 담론으로 재구성되는 생명체를 개방적이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생태 질서를 교란시키는 트랜스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을 문화인류학적 ‘성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적 성적 질서가 없다면 생태계는 존속될 수 없는 것이다. 동성애적 성질서는 이성애적 성질서와는 달리 거기에서는 후손의 증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성애적 생리적, 정서적 상호보완이 없기 때문이다.

켈러는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과 정신적 성(mental sex)을 혼동하고 있다. 전자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후천적으로 바꿀 수 없다. 생물학적 성은 동성과 교류할 수 없고 이성과는 교류할 수 없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성(異性)과의 결혼을 통하여 이성 한 몸이 되고 하나의 정신이 된다. 인간의 정체성은 몸과 정신의 통일성으로 이루어진다. 동성 간의 성적 교류는 변태적인 교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성이란 동성과 이성과 다양하게 교차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정신적인 성으로는 이성보다 우정을 나눌 수 있다. 트랜스 페미니즘이 젠더의 부정성(aphoraphis)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질서인 성의 젠더의 선천성, 생물학적 성의 선천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창조주의 창조질서를 젠더 이데올로기로서 부정하는 것이다. 젠더의 다양성이란 젠더 이데올로기의 인위적 주장으로 동성애와 혼혈성에, 퀴어 성(queer sex)을 지지하기 위한 고안물에 지나지 않는다.

퀴어신학은 인간의 제2반란을 지지하고 있다

다면 제1의 성(생물학적 성)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로부터 억압과 차별당하는 제2의 성(사회적 성)은 소통과 연대 속에서 해방을 쟁취해야 한다.

“제2의 성이 철저히 억압당하고 배제당하는 구조 속에서 제1의 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생물학적) 남성은 이 억압과 차별의 구조 속에서 이미 거세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구조로부터의 해방은 단순한 남/녀의 이분법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억압받고 차별받는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각자의 정체에서 진정성(authenticity) 혹은 성스러움(divinity)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만 진정한 해방이 가능할 것이다.”

트랜스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원적 젠더 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복잡하게 교차적 관계로 만들어 인간 존재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이데올로기적 구상일뿐이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트랜스 페미니즘이 창조 질서인 이원적 젠더 질서를 부정하고 트랜스 젠더(그/그녀/그것)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생명체를 개방적이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생태 질서를 교란시키는 트랜스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을 문화인류학적 ‘성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적 성적 질서가 없다면 생태계는 존속될 수 없는 것이다. 동성애적 성질서는 이성애적 성질서와는 달리 거기에서는 후손의 증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성애적 생리적, 정서적 상호보완이 없기 때문이다.

켈러는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과 정신적 성(mental sex)을 혼동하고 있다. 전자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후천적으로 바꿀 수 없다. 생물학적 성은 동성과 교류할 수 없고 이성과는 교류할 수 없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성(異性)과의 결혼을 통하여 이성 한 몸이 되고 하나의 정신이 된다. 인간의 정체성은 몸과 정신의 통일성으로 이루어진다. 동성 간의 성적 교류는 변태적인 교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성이란 동성과 이성과 다양하게 교차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정신적인 성으로는 이성보다 우정을 나눌 수 있다. 트랜스 페미니즘이 젠더의 부정성(aphoraphis)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질서인 성의 젠더의 선천성, 생물학적 성의 선천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창조주의 창조질서를 젠더 이데올로기로서 부정하는 것이다. 젠더의 다양성이란 젠더 이데올로기의 인위적 주장으로 동성애와 혼혈성에, 퀴어 성(queer sex)을 지지하기 위한 고안물에 지나지 않는다.

퀴어신학은 인간의 제2반란을 지지하고 있다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애(性愛)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젠더 이데올로기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스스로 젠더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원죄를 되풀이하는 제2의 반란(the second revolt)이다. 원죄란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반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하나님 계명을 엄밀히 읽어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동산의 각종 실과는 네가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셨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 먹되”(창 2:16).

그러나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창 2:17a).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b).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한계를 설정하신 것이다.

선악과란 단순히 과실을 먹지 말라는 과수원 주인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원리를 제시하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생명력을 공급 받음으로써만 그 영혼과 신체가 존재함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누릴 수 있고, 인간의 지식이란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됨으로써만 진정한 앎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너질 때 인간의 존재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동산 과일을 임의로 먹되, 선악과라는 지식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나무 실과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셨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창 3:22).

그러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나무 실과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셨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들을 두어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4).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반역함으로써 생명나무 길로부터 차단당했다. 이것이 죽음의 존재가 된 인간 존재의 운명인 것이다. 오늘날 젠더주의자들은 인간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젠더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의 피조적 제한성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성(性) 정체성을 정립하고자하는 시도으로써 제2의 반란(the second revolt)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낙원에서 뱀이 화의를 유혹한 이 말은 오늘날 젠데이데올로기가 인간 신화를 시도하는 내용이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젠더를 정할 때 인간은 전통적 성의 굴레에서 해방된다

는 것이다.

창세기의 이야기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는 관계로부터 단절되었다. 창세기 이야기의 교훈은 선과 악을 아는 일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창 3:22).

그러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나무 실과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셨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들을 두어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4).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반역함으로써 생명나무 길로부터 차단당했다. 이것이 죽음의 존재가 된 인간 존재의 운명인 것이다. 오늘날 젠더주의자들은 인간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젠더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의 피조적 제한성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성(性) 정체성을 정립하고자하는 시도으로써 제2의 반란(the second revolt)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낙원에서 뱀이 화의를 유혹한 이 말은 오늘날 젠데이데올로기가 인간 신화를 시도하는 내용이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젠더를 정할 때 인간은 전통적 성의 굴레에서 해방된다



김명환 박사
(기독교학술원장/살롬
나비 상임대표/송실대
기독교대학원 설립
원장)

“하나님 자녀, 영생, 죄 사함 축복”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자 총 43명 세례 받아



지난달 29일 세례받은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이 기도해 주고 있다.

지난달 29일(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아주 특별한 세례식이 있었다. 지난달 14일 열린 믿지 않는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참가자 38명이 세례를 받은 것. 이날 세례식은 찬양과 특순, 간증영상 상영, 말씀, 세례식, 축복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이기원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생을 얻는 축복, 죄를 사함 받는 축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세례식에 참가한 배은심 성도(이촌공동체)의 어머니 강은애 어르신은 “항상 내 죄가 크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 세례를 받으니까 마음이 활개 분하고 기쁘다”고 고백했고, 딸 배은심 성도(이촌공동체)는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다. 황연희 성도(성북

공동체)의 아버지 황기원 어르신은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좋은 공연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지난 2일 열린 행복드림콘서트 후 속프로그램 ‘Dream 가족기차여행’에서도 5명의 부모가 세례를 받았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5차 장로아카데미 종강

43명 수료, 참가자 전원 성경1독

5차 장로아카데미가 종강했다. 지난달 2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5차 장로아카데미 종강예배를 드렸다. 종강예배는 유재홍 장로의 찬양, 정대서 장로의 기도, 참가자 자기소개, 박종길 목사의 말씀, 수료식, 축사 및 축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2주 동안 진행된 5차 장로아카데미에서는 43명의 장로가 수료했다. 15명이 개근상, 참가자 전원이 성경

1독 통독상을 수상했다.

이장로 장로는 “지금까지 장로 190여 명이 장로아카데미를 수료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면서 “앞으로도 장로아카데미를 통해 장로들이 회복되고, 한층 더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로아카데미는 장로들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을 돕는 12주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 이소정 기자

KGLMF(한국글로벌선교지도자포럼),

〈난민, 이주민, 탈북민에 대한 선교 책무〉출판

KGLMF(한국글로벌선교지도자포럼)가 〈난민, 이주민, 탈북민에 대한 선교 책무〉출판감사예배 및 세미나를 지난달 28일 남서울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 조나단뱅크(GLMF), 신현승 장로(2000선교본부) 등 국내 선교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난민, 이주민, 탈북민에 대한 선교 책무〉는 2017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제4회 KGLMF의 발

표와 논평’을 엮은 책이다.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글로벌 사례 및 실천적 지침,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성경강해, 온누리교회의 몽골, 이라크 역파송 선교에 대한 사례 등이 담겨있다.

〈난민, 이주민, 탈북민에 대한 선교 책무〉는 두란노서원 등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강건하게 영수(永壽)하십시오”

용산노인복지관 ‘산수·미수 축하연’ 개최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기관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하 용산노인복지관)이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초청해 ‘산수·미수 축하연’을 개최했다. 지난달 25일 용산역 아이파크몰 아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제11회 용산구 어르신 산수·미수연에는 국회의원 진영,

이성희 관장(용산노인복지관), 용산구에 거주하는 산수(80세) 및 미수(88세)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축하케이크 커팅, 장수사진 촬영 및 기념품 전달,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큰절 올리기,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김영선 기자

70기 성령수련회 개최

70기 성령수련회가 6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70기 성령수련회에서는 ‘성령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성도는 6월 13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서빙고 010-7197-2812
양재 010-8955-3610

제6회 온누리 탁구대회 개최

6월 6일 서빙고 비전홀

제6회 온누리 탁구대회가 6월 6일 오전 9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개인전과 공동체별 4인 단체전이 진행된다. 온누리 탁구대회 수익금은 일본 요코하마 센다이 핑퐁 이웃리치를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탁구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3만 원이다. 오늘까지 전화(010-3772-3686)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3772-3686

제6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제6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가 6월 17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이다. 온누리아트비전, 사랑의교회미술인선교회, 영락미술인선교회, 백석대학원기독교미술선교회, 지구촌전문인미술선교회, 동안미술인선교회, 샘미술인선교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문의: 02-3495-1000

‘법적 이슈로 바라본 시대의 흐름’

CCF 세미나, 사단법인 크레도 발표

지난달 25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Legal Issue(법적 이슈)로 바라본 시대의 흐름’을 주제로 CCF(Christian CEO Forum)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단법인 크레도 남윤재 대표, 전윤성, 임소망 변호사가 크레도 5대 사역,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문제점, 국제법으로 바라본 북한 인권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간 헌법개정안과 제3차 NAP의 문제점과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크

레도의 주요 사역을 소개했다.

한중희 장로(OCC공동체)는 “국가의 헌법, 인권, 북한 인권 같은 주제들이 우리 실생활과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크리스천들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에 대해 성경적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윤재 대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의 법에 온전히 투영되도록 더욱 열심히 법을 연구할 것”이라며 사단법인 크레도에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 정현주 기자

QT인도자 세미나 ‘QT人투게더’ 참가자 모집

두란노 바이블칼리지에서 QT인도자 세미나 ‘QT人투게더’ 참가자를 모집한다. QT人투게더는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그룹 QT나눔의 필요성’, ‘QT

인도자의 영성과 인도법’, ‘리더의 묵상노트’, ‘다양한 유형의 QT나눔 워크숍’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대상은 두란노서원 QT기초과정 세미나를 이수한 목회자, 평신도, 리더십이다.

문의: 02-2078-3252



황숙희 권사의 백수(白壽)로
이어진 삶과 신앙의 지혜서 10

시대를 구하는 기도와 사역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6).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공의를 추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히브리 민족에게 기도는 그 자체가 싸움이고 사역이었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시대를 바꾸었다.

야곱은 밤새도록 결사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 야곱의 영적 갈구에 탄복한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승리와 언약의 후계자, 즉 이스라엘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주셨다. 창세기 32장 24-32절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다. 20년 간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공포, 에서의 증오와 원한이 화해와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현상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극적인 국면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힘겨운 씨름을 통해 야곱의 인격과 에서의 심경이 변화되는 위대한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자 형 에서의 분노가 온정으로 변했으며, 야곱을 죽이려던 사병은 호위병들이 되었다. 우리는 남북한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한다.

성도에게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오늘의 시

대는 자녀와 교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중보할 용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것이 의무다. 이 제사가 제대로 드러지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징벌 없이 축복을 받게 된다. 한 단체나 국가의 리더십이 영적으로 공의를 행하면 모든 공동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도 주셨다. 중보기도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영적 제사장의 최대 사명이다.

바울 사도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열려 있었기 때문에 광골 속에서도 비바람이 엄습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이 중보가 나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일이 복 받은 것을 기억하자.

요셉이 감옥에 갇을 때는 간수장이 복을 받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집트 전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한 국가가 축복을 받고 변화된 것을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다.

1997년 IMF 위기를 당하며 드렸던 기도가 생각나 일부를 옮겨 적어본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암흑하고 어두운 이때에 소망과 주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을 주소서. IMF 시대를 당하며 영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암울하고, 온 국민이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너무 어려운 때에 모두 마음을 합하여 옷깃을 여미고, 화개하며, 정신 차려 IMF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신앙의 회복, 경제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황무지가 변하여 장미꽃이 피게 하시며,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큰아들 손에 쥐어준 쪽지

큰아들 원우현 장로가 방학을 끝내고 다시 몽골 선교사역을 떠난다고 한다. 서운한 마음이 든 만큼 기도도 간절했다. 원 장로가 내게 큰절을 했을 때 나는 그의 손에 직접 쓴 메모 쪽지를 하나 쥐어주었다.

“하나님 아버지, 원 장로가 모든 것이 낯선 몽골로 떠나오니 주님 늘 같이 하시고 동행하시며 험통한 길, 복 받는 길로 인도하소서. 복음을 전하며 자기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에 집중하는 한 주님은 그 사명을 이루

시기 위하여 너를 반드시 지키고 능력을 주실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복

시편 기자는 편안한 장막에서 많은 날을 지내는 것보다 문지기로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는 하루가 좋다고 노래하였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기를 기뻐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다. 성전을 갈망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몸과 마음이 쇠해질 정도로 노래했다. 그가 성전을 얼마나 열렬히 사모했는지 성전에 기거하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고까지 하였다. 이렇게 노래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기도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더욱 힘을 얻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두란노 신간

내면의 힘 기르기!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닉 부이치치 저 / 두란노 / 11,000원

때 내면의 힘이 섰기 때문이다. 성경적 가치관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어떤 파동과 괴롭힘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닉 부이치치는 여전히 전 세계를 무대 삼아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그의 ‘복음 전도사’ 사명은 원표가 없다. 잘 알다시피 닉 부이치치는 선천적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 10대 시절에는 남들과 다른 모습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며 보냈다. 닉 부이치치가 그 끔찍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한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 무엇일까? 닉 부이치치의 신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에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닉 부이치치는 자신을 지키는 내면의 힘은 가치관, 자신감, 지원군, 진짜 적, 믿음, 지혜, 괴롭힘 방어 전략 등이라고 정의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을 제시했다. 내면의 힘 중에서도 ‘가치관’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인간적인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가족



〈가정, 오리진의 회복〉
도은미 저 / 두란노 / 13,000원

가족이란 무엇일까? 도은미 목사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창조”라고 답했다.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결과이다. 창세기에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잘 담겨 있다. 도은미 목사가 펴낸 〈가정, 오리진의 회복〉에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과 참된 연합을 이룬 가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족이 되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자 회복시키는 거룩한 과정이다. 도 목사는 이 책에서 ‘아보다’, ‘멜라카’, ‘라다’, ‘사마르’ 등의 단어를 설명하고 있다. 이 단어들은 가정의 본질과 창조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열쇠이다.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장로칼럼

스타워즈와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육동건 장로
(이촌공동체)

1977년 여름 미국 SF영화 스타워즈가 처음 개봉했을 때 LA의 한 극장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다. 동네 수많은 어린이들이 아빠와 엄마 손을 붙잡고 이 영화를 보러 가는 풍경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알다시피 스타워즈는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미국의 국민영화다. 크게 20년 주기로 시리즈물이 개봉될 때마다 공전의 히트를 쳤다. 스타워즈의 성공비결은 영화 이상의 문화 콘텐츠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소중한 추억을 심어줬더니 그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똑같은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이것을 ‘노스탤지어 효과’라고 부른다. 20년 전 아빠와 함께 스타워즈를 봤던 어린이들이 20년이 지나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됐다. 그리고 1999년 스타워즈 두 번째 시리즈가 개봉했을 때 그들의 자녀들과 다시 영화관을 찾았다. 그리고 약 20년 뒤에는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어 스타워즈 세 번째 시리즈가 개봉하면서 그들의 자녀들과 영화관을 다시 찾았던 것이다. 스타워즈의 성공비결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영화보다 재미있고,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 역사하는 성경이야기가 신앙유산의 콘텐츠로 자리 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2015년 여름, 일대일 제자양육의 새로운 방향성에 관한 비전을 품게 되었다. 바로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구상단계를 거쳐 2016년 초 동역자들과 함께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 출간을 준비했다. 1년 뒤인 2017년 2월 드디어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가 두란노서원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 나는

그날 새 생명을 낳은 부모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가 완성돼가는 과정마다 돕고 기도해주신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각 캠퍼스 파일럿 테스트 참여 가정, 두란노서원 편집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는 이스라엘의 교육방식을 착안해서 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육에 힘썼는지를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 멸망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었다. 2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오늘날 그들의 나라를 되찾았다. 비록 국토 면적은 작지만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의 큰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세대를 잇는 신앙교육의 영향이 컸다.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결과이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묻고 답하고 생각하는 ‘하부르타’ 방식의 독특한 교육법을 채택했다. 그리고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직접 교육하고 양육한다.

온누리교회는 이미 30년 동안 성인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하부르타 양육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여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실시하는 수직 방향의 양육 방식을 접목시킨 것이 바로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물 댄 동산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대와 세대가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각 가정에서 계승될 것이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가정이 살아날 것이다. 한국 교회에 소망이 생길 것이다.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30년을 향한 열매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일대일 제자양육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권사칼럼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이명순 권사
(서대문공동체)

나에게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 가지 기도제목이 있었다. 말을 꺼낼 수 없어 속으로만 가슴앓이하고 있던 기도제목이었다. 아들의 구원 문제였다. 아들은 군대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제대 이후에는 한참을 떠나 있었다. 교회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직장 상사나 친한 동료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우연찮게 성경을 읽고 주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남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직장생활을 하느라 분주해서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5살 때 시골에서 데려온 19살 된 돌봄이 누나와 함께 지냈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온 뒤로부터 아들의 몸에 멍이 자주 들어 있었다. 나는 돌봄이에게 멍자국에 대해서 물었다. 그때마다 그 돌봄이는 “넘어졌어요”, “벽에 부딪쳤어요”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다. 하루는 아들의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어 돌봄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번에도 넘어졌다고 했다. 나는 그 멍이 때려서 생긴 것이지 넘어져서 생긴 멍 자국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제야 돌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돌봄이는 아들이 밥을 먹지 않아서 때렸고, 오줌을 싸다고 때렸다. 주인 없는 집에서 온갖 구박을 하면서 아들을 힘들게 했다. 아들은 그 후유증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과에서 ‘강박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들의 상처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깊었다.

아들이 큰 상처를 얻게 된 것이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항상 미안했다. 아들은 자신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인지 결혼 이후에도 자식 낳기를 한사코 거부했다.

“저는 책임지지 못할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아이는 절대로 낳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5년을 버텼다. 아들이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여동생이 자식을 낳는 것을 봤다. 아들은 그 조카를 귀여워했다. 그 조카로 인해서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얼마 후 큰 결심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어 지금의 손자가 태어났다. 아들이 손자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른다. 직장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여름만 되면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 수영장에 꼭 간다. 놀이터에 가서 아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시간도 자주 가진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피곤해도 끝까지 놀아주는 아들바보 아빠가 되었다.

손자가 무럭무럭 자라서 유아원에 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며느리와 손자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손자가 아들에게 “아빠도 함께 교회에 가자”고 졸랐다. 아들은 마지못해 교회에 가기 시작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얼마 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우진씨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울었어요!”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내 기도가 성취되기 시작했다.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영예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 습니다”(시 104:1).

신앙에세이



임경현 전도사
(서형교 파위웨이브)

온도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온도에 따라 감정이 변하고 입는 옷이 달라진다. 먹는 음식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 온도가 적정선을 넘어서거나 못 미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우리 몸의 온도가 적정 체온보다 4~5℃만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최근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를 읽었다. 이 책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온도의 변화로 표현하면서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언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상대방의 생각과 감

정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정서적,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다. 반대로 열정과 성공에 취해 들뜨고 흥분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는 그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차갑고 냉정한 충고를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기도 한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약 3:2).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매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언어의 온도> 저자는 88개의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말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독자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

성경에서도 매우 오래전부터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잠언에는 말에 대한 지혜가 가득하다. 그중에서 곱씹으면 유익한 구절이 있다.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잠 25:11).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과연 적절한지 자문해봐야 한다. 또 내가 할 말을 들으면 상대방과 나의 마음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와 상대방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다.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 말 한마디로 따뜻한 위로를 받은 기억이 떠오른다.

작년 5월 목사고사를 준비할 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그 고민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이유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고민을 아내와 나눴다. 그때 아내가 내게 이런 말을 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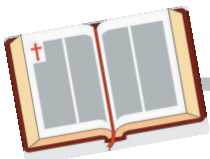
“목사다워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거예요”

이 대목까지는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 말 한마디가 매우 큰 힘이 됐다.

“자기, 잘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체온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내 마음에 온기를 제공했다. 나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다.

오늘 내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일까? 내 언어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일터와 하나님 나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입니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과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윤택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22~24절).

이 말씀은 노예제도를 합리화하거나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를 향하여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곧 예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십시오.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상관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기준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성공기준은 진실함과 성실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결과는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일을 통해 큰 돈을 벌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

을 줄 수도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성공보다 진실한 실패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성공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은 권위자와 리더십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1절).

의와 공평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권위자로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회의가 예배입니다.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권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임금을 공정하게 지불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와 공평으로 대하십시오. 이러한 시각이 바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일과 예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는 구명보트가 아니라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왜 구명보트에 올라타니까? 그 밖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올라 탄 그들을 다시 홍수의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에 태운 이유는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명보트에 올라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명보트가 되어 세상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모두 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땅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일터는 포기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세상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명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23절).

이것이 바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주께 하듯 예배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일터로 부르시고
일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며
일을 통해 예배드리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을 포기하고, 회피하고, 도피하고
때로는 우상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서
일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살아 숨 쉬는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



임찬웅 집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문화재해설가)

있었다.

선교사들은 제사문제와 신분문제를 정면 돌파하였다. 서울의 곤당골교회(현 인사동 송동교회)에 백정 출신 박성춘이 출석하자 양반 교인들이 집단으로 교회를 나가버렸다. 양반들의 집단퇴장에도 당시 곤당골교회를 섬기던 무어 목사는 굴복하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며 박성춘을 받아 주었다.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와 많은 문화적 부딪침을 겪었다. 제사문제를 비롯해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등 많은 문화적 갈등이 있었다. 조선시대 백정이 누구였는가? 겉모습만으로도 백정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백정을 보면 “백정놈 간다”고 놀렸을 정도였다. 박성춘은 “백정도 사람대접하는 종교가 있다”면서 전도하러 다녔다. 그 결과 곤당골교회가 차고 넘치게 되었다. 박성춘은 무어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독립협회가 주도한 만민공동회 연사로 활동하였다. 그의 아들 박서양은 의사가 되어 독립군을 치료하는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몇 년 전 TV드라마 ‘제중원’의 주인공이 바로 박서양이다. 박성춘이 장로로 장립 되는 단계에서 양반들이 그와 함께 활동하기를 거부하고 또 다시 집단으로 교회를 나가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가 복촌한옥마을 가운데 자리한 안동교회이다.

지혜롭게 문제를 극복한 교회들

선교사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칼날처럼 날

카로웠지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며 현실에 맞게 변화시켰다. 특히 남녀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문제는 공간분할로 해결 가능했다.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 익산의 두동교회, 경북 영천의 자전교회에 가면 남녀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금산교회와 두동교회는 ‘ㄱ자’ 모양의 예배당을 만들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앉도록 했다. 목사님이 ㄱ자 모양의 꼭지점 부분에 서면 양쪽에 앉은 남녀 교인들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남녀 교인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다. 남녀가 유별하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던 시절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혜롭게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영천의 자전교회는 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세례를 베풀 때에는 커튼에 구멍을 내어 머리만 내밀고 세례를 받도록 했다. 현

재의 시선으로 보면 웃음이 나올 만하지만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다.

교회는 교인수가 많아지면 더 큰 규모의 예배당을 짓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기 교회 건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다. 금산교회, 두동교회, 자전교회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의 발걸음을 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회들을 찾아가 봐야 한다.

뿌리는 매우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만난 하나님을 찾아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봤으면 좋겠다.

금산교회: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07
두동교회: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17-1
자전교회: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자전리 773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년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자)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CMN 토보팀 해외아웃리치 모집

일시: 8월 10일~15일

지역: 인도네시아 살라피카

회비: 150만원

모집: 치과의사

문의: 김택수 팀장(010-8902-5987)

CMN 마노아 해외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11일~16일

지역: 인도네시아 람퐁

회비: 110만원

사역: 의료사역(약사 등)

문의: 이대현 팀장(010-3387-7764)

CMN 드림팀 해외 아웃리치 모집

일시: 8월 8일~13일

지역: 스리랑카 해튼

회비: 165만원

모집: 치과의사

문의: 010-4230-1474

CMN 의료선교 캄보디아 아웃리치

일시: 9월 20일~27일

비용: 110만원+

사역: 의료사역

문의: 김경아 간사(010-8983-3520)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을 받음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장형식 총무(011-515-6174)

표인홍,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세상 속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들의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합니다

방송시간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



연예계 동료와 선후배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개그우먼 이성미] 편

방송 : 6월 3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일상에서 만나는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광고대행사 '복음의전함'
[고정민 이사장] 편

방송 : 6월 10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